

기독교 신앙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6)

안녕하세요.

저는 4 지역을 섬기고 있는 주원규 집사입니다.

오늘도 학업으로 많이 바쁘시고 개인적으로 귀한 시간인데, 이렇게 모든 것을 뒤로 하시고, 갈보리 뉴 라이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 서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독교 신앙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참으로 날이 갈수록 세상이 참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었던 6년전의 911 테러사건과 또 얼마전에 일어났던 인도네시아의 쓰나미 해일 사건이 기억납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 다시 한번 인간의 한계를 느낌과 동시에 정말 예측 불허와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음을 알게됩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여 스스로 달려 오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혹시 누군가의 권유에 못 이겨서, 마지못해 끌려오신 분이 혹시 있더라도, 이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쨌든 간에 먼저 여러분께 한가지의 질문을 던짐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선입견들을 갖고 계셨습니까?

물론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일반적인 예, 3가지만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째로는, 기독교 신앙은 지루하고 재미 없다 라는 것입니다.

일주일 내내 세상속에 살다가 일요일 하루만이라도, 밀린 잠도 좀 자고, 친구들과 함께 야외로 나가, 신나게 한번 놀아보고 싶은 것이, 아마 우리 학생들의 일반적인 욕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 역시도 결혼 전에는 불신자였고 비록 결혼 후 아내를 따라 교회는 다녔지만 이른바 날날이 신자였던지라 예배 시 조는 것은 기본이고 목사님의 설교와는 상관 없이 여러가지 세상 생각들에 빠져 있곤 했습니다. 또한 언제 끝나나 늘 시계만 바라보던 제 모습을 기억합니다.

심지어 부부싸움이라도 할라치면 재미없고 지루하게 만 느껴지던 주일 예배에의 불참 선언이 저에게는 아내를 향한 불만 표출의 또다른 수단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마 과거의 제가 그랬던 것처럼 거의 매주 반복되는 그 삶이, 너무 재미없다고 느껴지시는 분도, 아마 이 자리에 혹 계실런지도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선입견은, 기독교 신앙은 거짓말 같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세상 교육은, ‘원숭이가 우리 인간의 조상’ 이라고 믿게하는 진화론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어릴 적부터 이 진화론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라고 믿는 기독교를, 쉽게 받아드리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쓰여진 말씀들이 거짓말 같기도 하고, 마치 꾸며낸 이야기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경 속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되고, 믿어지지 않아서 참 많이 고민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세 번째 선입견은, 기독교 신앙은 나와 상관이 없다 라는 것입니다.

*** 나의 간증 ***

사실상 2천년 전에, 중동지역에서 태어나 성장하시고, 활동하셨던 예수님과 오늘날 최첨단 문화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젊은 세대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 자신 또한 한번도 깊이 생각해 본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 당시 성경에 정통하고 예수님을 눈으로 본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하물며 2천년이나 지난 지금/그 예수님을 믿어 보라고 하면 믿겠습니까? 더욱이 다른 종교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 나와 상관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 많은 시간들 동안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기독교는 그저 나와는 상관이 없는 서양사람들이 전해준 한 종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으니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한 것처럼 제가 아내를 따라 교회를 처음 나가기 시작한 때가 1996년이니까 대략 12년이 지났습니다.

결혼 전 저희 집안의 신앙은 무당을 섬기는 무속신앙 이였기에 기독교 신앙과 제 자신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늘 생각하였습니다.

저의 집안이 왜 그토록 무속 신앙에 집착하게 되었는지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무엇보다도 저는 초등학교 6년동안 6개월이나 결석을 하였을 정도로 어릴 적에는 몸이 너무나도 허약했으며 제 자신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더더군다나 수 차례에 걸친 어머니의 엄청난 수술비 때문에 온 집안에 은행으로부터 빨간 차압 딱지가 사방에 붙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였었고 때문에 비싼 의료비의 병원보다는 집 근처의 값싸고 용하다는 무당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영적 무지가 빚어낸 황당한 일이었지만 급기야는 병원에서조차 고치치 못하는 제 병을 무당이 한바탕 굿을 한 후 고치는 것을 보고 부모님의 결정에 따라 그 무당을 영적 어머니로까지 받들며 살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영적무지와 우상섬김의 삶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아내를 만나게 되면서 큰 변화를 맞게 되었고 정말 저에게는 상관이 없던 기독교 신앙이 나와 상관이 있는 신앙으로 점차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간증은 잠시 후에 해드도록 하겠습니다.

II. 본론

예, 그럼 이제부터 기독교 신앙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상관이 있는지, 그 이유를 한 3 가지 정도로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기독교 신앙은 진정한 가치를 다시 찾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어합니다.

여러분이 오늘도 각자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동분서주하며 바쁘게 하루를 뛰어 다니신 것도, 따지고 보면 좀더 가치 있는 삶을 이룩하기 위한 투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진정 가치 있는 삶일까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지음을 받은 자는, 지으신 자의 목적대로 쓰임을 받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된다는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토기장이가 좋은 목적을 가지고 ‘질그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잘못 간수하여 그만 그릇에 금이 가고, 아주 쓸모 없는 그릇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기장은 그 쓸모 없어진 질그릇에 귀한 보배를 가득 담았습니다.

예, 그 질그릇 자체는 물론 아무 가치도 없지만, 실은 거기 담긴 값진 보화 때문에, 아주 존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 셈이지요.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런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가능해집니다.

저 또한 하나님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경험이 있습니다.

앞서 간증드린 것처럼 무속신앙의 그늘 속에서 살아온 저의 상황을 알고 내심 몹시 안타까워하던 아내는 연애기간 동안 제가 책 읽기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고 저를 전도하기 위해 기독교의 기본진리를 비롯해 기독교에 관한 많은 소책자들을 저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던 중 저는 “종교에 얽매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해하기 쉽게 쓰여진 로마서 강해서를 읽게 되었는데 저는 이 로마서를 통해 저의 죄를 깨닫고 제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 저에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단지 지식적인 차원, 아니 머리로만 아는 수준의 회개와 영접 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저는 기독교 신앙 안으로 한 걸음 내딛었지만 여전히 제 현실의 삶은 이전의 삶과는 큰 차이가 없이 기독교 신앙의 언저리만 맴도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게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하며 박사과정중의 바쁜 삶을 지내던 어느날 저에게는 벼락과 같이 다가온 삶의 시련을 통해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찾게 되고 경험하는 사건을 겪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아내의 예기치 않았던 임신과 더불어 일어나게 됩니다.

아내가 임신 했다는 사실에 기쁨도 잠시 아내는 곧 유산을 하게 되었고 검사 과정 중에 앞친데 덮친 격으로 자궁에 많은 혹들이 발견되었습니다. 특히, 수정란이 착상하는 부위에 혹들이 많이 발견되어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을 수도 있다라는 전문의의 최종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큰 절망으로 집으로 가는 차 안에서 울음을 멈추지 못하는 아내를 곁으로는 달래고 있었지만 아이를 평생 가질 수 없다는 생각에 저의 마음 또한 한없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절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로 결심한 아내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자고 제안했고 그동안 액세서리처럼 여겼던 교회생활과 평생 기도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았던 저는 집 근처의 교회로 그 다음날부터 새벽예배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내기를 얼마 후 아내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수술을 받게 되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수술 후 3개월 만에 지금 저의 예쁜 큰 딸인 수연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담당의사의 우려 가운데 모든 것이 조심스러운 하루 하루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떠한 문제도 허락지 않으셨고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저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둘째 또한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교회는 다녔지만 기독교 신앙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한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다급한 마음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요.

무엇보다도 나 같은 죄인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하시며 제 삶의 진정한 가치를 알게 하시고 그 진정한 가치를 다시 찾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요 14:6)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 인해 끊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 이십니다.

둘째, 기독교 신앙은 이 혼탁한 세상에서 유일한 ‘진리’ 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기독교가 그렇게 좋으면 당신이나 믿으세요, 난 싫다니깐요.” 또는 “나중에 나중에 믿지요.” 라는 태도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비 논리적인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독교가 진리라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생명이 걸린 중요하고도 가장 급박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 기독교가 진리가 아니라고 한다면, 기독교인들은 속은 것이 분명하기에 절대로 ‘좋은 것’ 이 될 수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을 떼는 것이 오히려 좋겠지요.

하지만 기독교가 진리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역사적 조명을 통해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이셨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서는 역사의 중심부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역사를 B.C.라 표기하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의 역사를 A.D.라 표기하는 것을 볼 때 확실히 증명이 됩니다. B.C.는 *before Christ*, 즉 ‘예수님 탄생 이전’ 을 의미하구요, A.D.는 *Anno Domini*, 즉 ‘예수님 탄생 이후’ 를 의미한다고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또한 ‘역사’란 뜻을 가진 ‘history’ 라는 영어 단어가 *His Story* 라는 어원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예, 이와 같이 확실한 역사적 증거 위에 세워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생애와 그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 나의 간증 *

사실 저도 여러분과 같이 2003년도 가을 CNL 2기 캔디데이트로 참석하여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행 11:16)*라는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저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셨고 영적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제가 세상에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던 날 아니 그 온전한 진리를 찾았던 그날, 저는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외치며 한없이 울게되었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왔던 나의 삶을 얼마나 회개 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후 교회에서 2004 년을 맞이하며 산상축복성회를 기도원에서 열게 되었는데 그 성회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제 자신의 존재 이유와 하나님의 아들로써의 그 가치 그리고 세계선교 마무리라는 교회의 큰 비전과 관련된 제 삶의 비전 또한 알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exciting 한지를 알게 하였고 이를 통해 제 삶 또한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신앙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전도서에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전 3:11)

저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죽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지요. 할 수만 있다면 죽은 후에도 계속 살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쁜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따라 참으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창조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아담의 범죄로 인해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간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었고 심지어는 우리는 최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죄 가운데 노출되었고 죄에 대해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참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분의 삶에 내 삶을 비추어 볼 때야 비로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기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속에는 물론 여러분의 죄도, 저의 죄도 포함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삯인 사망 즉 죽음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 영원한 생명,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회복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살 때 누리게 되는, 엄청난 특권이며 축복입니다.

‘내가 곧 ...생명이다’ (요 14:6) 라고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캔디데이트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는 늘 크고 작은 시련과 고난들이 따르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고난과 시련은 축복으로 변하고 우리의 삶이 더욱 풍성해 진다는 사실을 믿고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III. 결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하루 하루 동행하는 삶을 통해 기독교 신앙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가치있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둘째, 기독교는 거짓말이 아니라 훈탁한 세상 가운데 오직 유일한 ‘진리’입니다.

셋째, 기독교 신앙은 나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의 삶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새 생명’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는 들의 풀꽃 같은 나그네들입니다.

무엇을 찾아 지금까지 살아오셨는지요?

한 번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되돌아 보고 앞으로 살아갈 날들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들은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 갈보리 뉴라이프 과정은 여러분에게 우연으로 주어진 시간이 아닙니다. 이시간을 통해서 꼭 신실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또한 이를 통하여 기독교 신앙이 정말 나와 상관이 있는 유일한 진리의 신앙이라는 것을 깨닫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끝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